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대응식 수화의 문제점 분석

장진석*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요약》

이 논문은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대응식 수화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한국수화'는 자연성, 축약성, 표현상의 공간성, 의미과약상의 시각성, 손 동작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유사표현, 사물의 동작, 위치, 형태, 크기 등을 손의 움직임, 위치, 형태에 옮겨 놓는 오노마트페, 음성언어와 같은 리듬,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연기하는 롤 슈프트, 농인들의 선호성, 농인들의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적절성 등의 특성이 있다. 반면, 국어대응식 수화는 1) 형성과정 및 표현상의 비(非)자연성과 비(非)축약성, 2) 수화표현상의 문제점에서의 ① 공간 활용상의 반(反)복합성 및 폐쇄성 ② 공간 표현 기능상의 제한성 및 경직성, 3) 의미 표현상의 반(反)시각성과 부적절성에서의 ① 언어기능 표현상의 비(非)문법성 ② 언어기능 표현상의 반(反)시각성 ③ 의미표현상의 부적절성, 4) 유사 표현의 제한성에서의 ① 유사 표현의 제한성 ② 오노마트페에서의 비운율성 ③ 수화 리듬상의 경직성 ④ 롤 슈프트에서의 부적절한 역할 표현 등 국어대응식 수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구명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국어대응식 수화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학계와 농교육계의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자연수화, 한국수화, 국어대응식 수화, 유사표현, 유사의 오노마트페, 롤 슈프트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수화는 농인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따라서 수화는 소리를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청인들의 음성언어와는 그 구조와 어순이

* 교신저자(prchang@kornu.ac.kr)

같지 않다. 음성언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사람들이 이를 말하고 듣고 이해하지만 수화는 어떤 의미의 전달 수단이 매우 상징적이며, 긴

말이나 문장을 그대로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축약되어 표현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수화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익혀 사용하고 있는 농인들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화의 특성을 모르는 건청인들은 농인들의 수화가 도대체 무슨 뜻을 표현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인들이 쓰고 있는 한국수화(자연수화)는 그 구조나 어순·어휘 등이 음성언어(한국어)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농인들이 한국어를 배워 활용하게 하자면 수화를 국어대응식 수화로 만들어 가르치고 배워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인권·자유·평등사상이 크게 확산된 20세기 후반부터 오랜 세월동안 억눌렸던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 등이 국가 정책적으로 확산, 보급되면서 더욱 빛을 보게 되었다.

1975년 국제농교육회의 이후 토털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수화단어의 체계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토털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적인 확산과 맞물림으로써 교육과정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1983년 개정된 '농학교 교육과정'의 요육활동 목표와 내용에 따라 1987년에 편찬된 '농학교 초·중·고등부 언어표현활동 교사용 지도서'에 지문자와 지숫자, 수화의 일부가 수록되었고, 1989년에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에서 처음으로 초등부 요육의 목표에 지문자와 표준수화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였다(윤병천, 1996).

또한 1989년 서울농아학교에서는 국내 최초로 의도적인 수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화를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주 1시간씩 지도하게 될 학생지도용 수화교본 3권을 간행하였는데 그 특징은 자연수화를 따르되 문법수화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농학교의 3차(1983), 4차(1989) 교육과정에서 수화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하면서 수화교육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글식 표준수화(1991)가 교육부장학자료로 발간되었고, 중학부 학생지도용 교과서로 '수화1,2,3(1993-1995)이 편찬되기에 이르렀다(김철관, 1999). 4차 교육과정(1989) 고시 이후의 수화학습용 교재(중학부)와 초등부 고학년 국어(언어영역에서의 수화)는 3차 교육과정에 비해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어법에 맞는 수화지도의 원칙은 여기서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는 말하기의 보조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어 어법에 맞는 수화 운용은 새 교육과정(교육부고시 1998-11)에서 더욱 확고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안된 국어대응식 수화 체계는 학교 차원에서 개발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농학교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화체계이다. 따라서 한국수화(자연수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 사용하고 있는 농학생들마다 배우는 수화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수화를 사용하게 되어 건청인들은 대부분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수화 교육상의 혼란을 막고 수화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자연수화의 기호와 지문자를 병용하여 국어문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화 체계가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국어대응식 표준수화라고 불려지게 되고 각 학교에 그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이는 농사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연수화(한국수화)와 대립되는 수화로서 문법수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수화체계 혹은 문법수화들은 농아동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국어 문법체계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른바 고안된 국어대응식 수화인 것이다.

그런데 농인들은 농인들의 자연수화(한국수화)에 더하여 고안된 국어대응식 수화를 배워 쓰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 간의 의사소통상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국어대응식 수화 사용을 기피하고 그들의 자연수화(한국수화)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농인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쓰이고 있는 한국수화는 건청인들이 보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적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결함이 많은 불완전한 언어인지, 그와는 반대로 고안된 국어대응식 표준수화 즉, 국어대응식 수화는 농인들이 배워 사용하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훌륭한 언어인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대응식 수화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구명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 즉, 수화의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자연성 및 축약성, 공간성, 시각성, 유사표현, 오노마트페, 리듬, 롤 쉬프트 등의 특성을 구명한다.

둘째, 이상과 같은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대응식 수화표현에서 본 문제점 즉, 1) 형성과정 및 표현상의 비(非)자연성과 비(非)축약성, 2) 수화표현상의 문제점에서의 ① 공간 활용상의 반(反)복합성 및 폐쇄성 ② 공간 표현 기능상의 제한성·경직성, 3) 의미표현상의 반(反)시각성과 부적절성에서의 ① 언어기능 표현상의 비(非)문법성 ② 언어기능 표현상의 반(反)시각성 ③ 의미표현상의 부적절성, 4) 유사 표현의 제한성에서의 ① 유사 표현의 제한성 ② 오노마트페에서의 비운율성 ③ 수화 리듬상의 경직성 ④ 롤 쉬프트에서의 부적절한 역할 표현 등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한다.

4. 연구의 방법

첫째, ‘한국수화의 특성’에 대해서는 한국농아인협회 출간 ‘한국수화(1998)’와 장진권의 ‘재미있는 한국수화여행(2004), 김철관의 ‘수화지도의 이론과 실제(1999) 등 국내외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어대응식 수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수학교(청각장애) 중등부 수화 1(1993), 2(1994), 3(1995) 및 그 밖의 국내외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어(말)에 대한 한국수화의 표현에 비해, 국어대응식 수화의 표현이 어떻게 다르며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점에 대한 분석기준으로서의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5. 용어의 정리

1) 한국수화와 국어대응식 수화

수화는 농인들이 음성언어의 의미를 그들 나름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 온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수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화를 일반적으로 자연수화(natural sign language)라고 한다. 그러나 이 자연수화를 농교육계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라고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자연수화’ 또는 ‘한국자연수화’를 ‘한국수화’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문법과 어순에 따라 만들어진 수화는 이를 ① 고안된 한국수화, ② 고안된 국어대응식 수화, ③ 고안된 국어대응식 한국수화 ④ 고안된 국어대응식 표준한국수화 ⑤ 국어대응식 수화 ⑥ 표준한국수화, ⑦ 한글식 수화, ⑧ 한글식 표준수화 ⑨ 한글식 문법수화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 중 농교육계에서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은 ‘국어대응식 표준수화’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표현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어대응식 수화’ 라고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어의 어순 배열을 충실히 따르는 언어체계이기 때문이다.

2)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청력상실로 인해 음성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농인’ 또는 ‘농아인’이라고 하고, 한편 ‘청각장애인’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음성언어를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청인’, ‘건청인’, ‘정상인’, ‘비청각장애인’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농인’을 ‘농인’ 또는 ‘청각장애인’으로,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건청인’으로 통일하여 표현하였다.

II.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

1. 형성과정의 자연성, 표현 방법의 상징성 및 축약성

수화는 일반 건청인들의 음성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농인(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수단이다. 이 수화는 농인 중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전파된 것이 아니라 농인들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네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음성언어(말) 대신 취해 온 자연 발생적인 동작이다. 따라서 수화는 음성언어와는 그 구조나 표현양식이 결코 같을 수가 없고 매우 상징적이고 축약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수화는 비록 음성언어에서처럼 그 구조와 어순과 논리가 명쾌하고 정연하지는 못할지라도 화자의 뜻을 축약해서 상징적인 동작으로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타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농인들이 말하는 손동작 즉, 수화는 화자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데 손색이 없는 의사소통 역할을 충실히 해 낸다. 따라서 농인들이 그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취하는 동작은 곧 그들의 말 즉, 수화이며, 이를 구미에서는 수어(sign language)라고 한다. 농인들의 이러한 수화는 농인들이 오랜 세월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자연언어 즉, 자연수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농인들의 수화는 농인 또는 건청인 그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며, 그래서 농인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농인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때로는 긴 말을 짧게 축약해서 손동작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수화는 그 형성과정에서 농인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성, 음성언어를 손동작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하는 상징성과 긴 말을 짧게 줄여서 표현하는 축약성을 지닌다. 엄밀하게 자연적 수화의 예로는 지시기호, 정서의 자연스런 표출, 사람의 동작 흉내, 행동의 모방, 물건의 윤곽을 만드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행동의 몸짓이란, 말하자면 대장간, 풀베기, 우유 짜기(착유) 등의 수화이다. 축약적인 수화로는 여러 가지 도구나 동물 등의 일부 특징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승마, 댄스, 점프, 걷기 등 손가락 두개로 대응하여 표현한다. 처음에는 사상성(모방)에서 나중에는 하나의 약속받은 수화기호로 굳어진다. 이에 비해 건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어대응식 수화는 농인들의 시각적 언어감각에 맞지 않는다. 즉, 건청인들에 의해 고안된 국어대응식 수화는 위와 같은 한국수화(자연수화)에 익숙해져 있는 농인들에게는 마치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가 너무 어렵다며 영어의 특성을 무시한 한국식 영어를 만들어 주고 배우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지게 된다.

2. 표현위치상의 공간성

음성언어는 입속에서 만들어지고 표현된다. 그러나 수화는 공간적 차원에서 문법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Bellugi & Klima, 1980). 음성언어는 그 구조가 음성신호의 선조적(線條的) 연쇄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발생하거나 청취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수화는 공간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시각적 전달 수단에서는 복수의 요소가 동시에 병행해서 산출이 가능하다. 시각적 관점에서 음성언어의 단어가 음 분절의 선조적(1차원적) 연속임에 반하여, 수화의 신호는 동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공간적(3차원적) 차원으로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은(2002)은 Sacks가 밝혀 낸 수화 특징을 설명한 바 있는데, 수화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공간에 대한 언어적 이용이다. 수화는 어휘적, 문법적 또한 문장론적 차원에서 공간을 언어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적이다. 음성언어가 선조적(일차적)이고 또 시간적인 순차에 따라 표현되는 것에 반해 수화에서 그것은 동시다발적이면서 입체적이다. 수화가 즉, 수화의 표층이 외부적으로 제스처어나 얼굴표정처럼 단순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삼차원적으로 상호 얽혀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공간상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Sacks, 1997:131 이하).

농인들은 그와 같은 공간적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인식함을 통해서 대화의 의미를 이해한다.

수화와 시공간적 언어에서는 신호간의 관계가 주로 공간에서의 신호형태의 조작에 의해서 규정된다. 언어구조에 있어서 혀를 위한 구강에 비교할 만큼 손과 팔 동작을 위한 발화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언어의 의미 전달자로서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공간영역이 수화구조의 많은 양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사신호는 수화공간의 추상적인 장소 사이에서 움직인다. 지표는 한 지표장소로부터 다른 지표장소까지 동사의 통로(최초 및 최종지점)를 지시하며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한다. 따라서 동일한 순서를 가진 동일한 신호일지라도 동사의 이동방향이 변화되는 경우 다른 문법관계를 갖는다. 공간지표 체계는 어순의 상대적 자유를 허용하며 게다가 공간적 수단에 의해 문법관계를 분명히 특정화한다. 따라서 수화의 통사론은 공간의 추상적 지점과 공간표시의 조작에 상당히 의존한다. 예를 들어 '주다(give)'의 동작 방향에 제시된 일련의 형태를 조사해 보면, 모든 형태가 폭넓게 다양한 표면형태를 지니고 있다. '주다'의 수화기호는 상황에 따라 그 공간 시발점과 종착점이 다양한 표면형태를 지닌다. <나에게 주다>, <너에게 주다>, <여러 사람들에게 주다>, <두 사람에게 주다>, <각자에게 나누어 주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다> 등을 의미하는 토대로서, 손 형태와 국부동

작의 일정한 특질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수화의 신호는 동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공간적(3차원적) 차원으로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굴절 및 파생과정은 이 어근과 공간동작의 기타 특질(동작의 방식, 동작의 방향, 힘 따위)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화는 시각적인 전달 수단을 이용하는 언어체계의 하나라는 사실이고, 통사와 의미가 공간상에서 결정되고 공간적으로 조직화된다. 이것이 바로 수화가 지니고 있는 언어적 특징이다.

3. 의미 파악상의 시각성과 간결성

음성언어와 비교해 볼 때 수화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상성(像性)이다. 즉, 수화는 철저한 시각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농인들의 사고상(思考像)이 상당히 ‘시각적’으로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관계된 농인들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농인들이 가진 ‘고도로 발달된 시각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농인들은 아주 특별한 ‘시각적’ 형식 즉, ‘공간-논리적’인 형식을 통해 사고하고 회상한다는 것이다.

농인들은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대화문을 전체적으로 즉, 국어의 구문에 따르려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이다. 수화의 생명은 간결성과 축약성에 있다. 즉, 긴 문장을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매 순간 외부 세계로부터 많은 시각적 정보를 입력하지만, 그 처리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입력한 시각 정보들 중에서 중요한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하여 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화에서도 시각 정보의 선택 기제를 시각적 주의(attention)로 한다. 예를 들면 <나하고 같이 갈래?>의 한국수화로는 가슴 앞에서 편 양손 1·2지를 동시에 한 방향으로 위로 올리면서 붙이는 동작을 하며 고개도 약간 옆으로 숙인다. 이때 고개도 약간 옆으로 숙이는 그 자체가 시각적 주의를 이끌기 위한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같다>의 수화기호 하나만으로는 축약적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가다>의 수화기호도 손방향 만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같이 가다>의 기호가 복합적 또는 축약적으로 나타나 있어 그 의미가 정확히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시각적 주의를 이끄는 한국수화는 많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시각적 선택의 존재를 증명해 왔지만, 그 선택이 시각적 정보 처리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표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각적 정보의 선택이 어떤 표상에 근거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시각 정보 처리 기제가 외부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공간 표상을 근거로 주의를 할당(location-based selection)한다고 제안했다. 즉, 주의를 마치 spotlight의 빛이나 줌렌즈의 초점처럼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주어지거나 선택된 표상 내에서 이동하며, 그 영역에 놓인 자극들의 처리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Eriksen & St. James, 1986). 이러한 주장은 공간적 단서 패러다임(spatial cuing paradigms)을 이용한

일련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 왔다(Eriksen & St. James, 1986; Posner & Cohen, 1984, Posner, Snyder, & Davidson, 1980).

4. 수화의 유사(classifier) 표현

1) 유사

수화에서는 농인들 간의 대화시 시각적 즐거움을 오래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공간적 단서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대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수화에는 시각적인 자극을 받은 즉, 살아 움직이는 손동작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유사(classifier)라는 독특한 표현법이 있다. 이러한 유사 표현을 통해 지속적인 흥미진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화는 몸짓과의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주된 관점이었지만, 신경학적 연구에서 수화는 몸짓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언어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입증되어 있다. 수화는 단순한 몸짓과는 구별되는 언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조는 음성언어의 구조와 동등하다는 것이다. Stokoe(1960)는 수화는 「수형」, 「위치」, 「움직임」으로 분류해서 미국수화에는 21 개의 손 모양, 12 개의 손 위치, 22 개의 손 운동 등 전부 55개의 수화소(chemere)가 동시적으로 조합해지는 것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현재 분류되고 있는 수화의 음운적 구성요소는 「수형」, 「손바닥의 방향」, 「손의 방향」, 「위치」, 「접촉/비접촉」, 「움직임」, 「양손/한 손」, 「비수지 동작(시선, 눈썹, 입술, 코 등)」의 8 종류이다. 이러한 음운의 치환, 시간적인 길이의 조정, 반복 등에 의해 하나의 완벽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C.Valli,1996/ASL시 작품선집). 이러한 수화의 음운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닌 유사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법이다.

유사(classifier)는 사물의 의미적 문법적 카테고리 나타내는 접사를 말한다. 수화에서 classifier는 대명사의 일종이지만, 그 자체를 직접 연상시키면서 표현하는 음울적(즉, 리듬)인 손의 운동이다.

Supalla(1990)는 수화의 classifier가 음성언어의 classifier와 거의 같다고 하여 classifier는 형태소이며, 또 하나의 수화단어를 여러 모양으로 형성해 내어 연출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유사는 형태소이며, 동사의 어근은 운동이라는 전제 아래, 명사가 가지는 유사적 정보를 classifier가 가지면서 동사의 어근과 결합하여 동사가 되거나 혹은 명사의 어근에 결합하여 명사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classifier를 사스(SASSes), 의미유사(Semantic classifiers), 신체유사(Body classifiers), 신체부위 유사(Bodypart classifiers), 도구(器具)유사(Instrumental classifiers)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유사 중 <신체유사>의 수화 표현 양식을 예로 든다면, <똥똥한 몸>, <메마른 몸>, <깡마른 몸>, <다부진 몸> 등의 각기 서로 다른 다양한 몸 모양과 그 크기에 따라 그

수화 표현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2) 유사의 오노마트페(onomatopoeia)

음성언어의 오노마트페(의성<擬聲>·의태어<擬態語>)는 외계의 소리나 이 밖의 감각을 언어음에 옮겨 놓는데 비해, 수화의 오노마트페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위치, 형태나 크기 등을 손의 움직임이나 위치, 형태에 옮겨 놓고 있다. 이는 공간에서 비유나 몽상(夢想)·도식(schema)에 의거한 다양한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 음성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도, 수화에서는 오노마트페 안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 있다.

핀란드의 수화 시인 K. Leinonen의 수화시로 보여지는 수형 /5/은 Classifier이며, 나뭇잎을 의미하지만, 「언어로서의 수화」라고 하는 은유를 가진다. 수형 /5/를 앞으로서 가지에 붙어 있는 잎의 모습, 가지로부터 떨어져 땅에 춤추듯 나뭇구는 잎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다. 전자는, SASS+<DOT>로, 후자는 SASS+<MOV>이다. 전자의<DOT>는 복수로 표현되고, 한편 <MOV>에 있어서의 Path movement(동작 궤적)는 오노마트페로서 표현된다. 이러한 수화시에는 classifier가 많이 이용되어지고, 소리 상징으로서 오노마트페가 존재한다. 수화시를 보는 사람이, 시각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인 「음악」을 감지하는 것은 「소리 상징」이 수화에 있기 때문이다.

음성 언어의 오노마트페는 사상(寫像)의 소리를 언어 형식으로 수중에 넣거나(의성어: 텅텅텅, 웅성웅성…), 사상의 특징을 소리의 이미지에 옮겨 놓아 수중에 넣거나(의태어: 반짝반짝…) 한다. 그에 대한 수화의 오노마트페는 사상의 형태나 움직임이나 위치 관계를 언어 형식으로서 수중에 넣고 있다. 이는 「의형어」, 「의동어」의 용어로 바꾸어야 할 영역일 수도 있다고 하겠다. 수화에 대해서는, 이동 동사나 존재 동사, 공간 동사, 신체 동작 동사, 도구 사용 동사 등 대부분이 오노마트페에 의해 나타내진다. 오노마트페가 비교적 주변적인 위치에 분포하는 음성 언어와 달리, 수화에 대해 오노마트페가 기본 어휘 안에 많이 분포한다고 하는 점은 극히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수화와 음성언어의 모다리티의 차이(「구두→청각」대 「신체→시각」이라고 하는 표출·수용기관이나 전달 매체의 차이)에 기인하는 이동 중에서도 두드러진 차이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수화의 오노마트페를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① 곡선으로 날아가는 나비 ② 꽃에 사뻐히 내려앉기 위해 나는 나비 ③ 이 꽃 저 꽃을 옮기며 나는 나비 ④ 저 너머로 날아가는 나비 ⑤ 나비가 날개를 접다 ⑥ 나비가 날개를 펴다 ⑦ 나비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날아가다 등 여러 모양으로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수화에서 보여지는 오노마트페는 직관상, 거의가 불규칙적이고 임의적이고 일정하지 않다. 여러 모양에서 보여지는 상대방의 행동거지나 감정을 읽어보고 우리는 한 눈으로 대화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으로 또는 무한정적으로 표현된 많은 선 등으로 이루어진 입체의 세계를 그리는 독특한 언어세계를 지니고 있다.

3) 수화의 리듬

리듬은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의 편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대로 반복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화는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리듬이 있다는 것이다. 수화 리듬으로는 다음의 (1) 수형 (2) 방향(3) 손바닥의 방향 (4) 위치 (5) 움직임 (6) 한 손/양손의 6개 요소를 다양한 모습으로 조합해서 수화 리듬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C. Valli, 1996). Lentz(1995), Valli(1996)는 「음수름」, 「음운름」을 이용해, 운문시(정형시, 상징시), 산문시(구어적 자유시) 등 여러 가지 수화시를 발표하고 있다.

벨리(C. Valli, 1996)는 수형리듬(handshape rhythm), 동작궤적리듬(movement path rhyme), NMS리듬(NMS, Nonmanual Signals의 약어이며, 손가락 이외의 요소의 동작을 의미한다), 행단락리듬(line division rhyme)의 4개의 리듬을 바탕으로 해서 아름다운 수화 리듬을 연출해 낼 수 있다고 한다.

4) 수화의 롤 쉬프트(role shift)

수화에 있어서의 역할교체(롤 쉬프트)는 말하는 사람이 현재의 말하는 사람 이외의 다른 자(과거/미래의 말하는 사람도 포함한다)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 때, 말하는 사람의 비수지 동작, 즉, 표정, 시선, 상체(上體)의 움직임은, 각각 다른 사람의 표정, 시선, 신체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롤 쉬프트는 수화 언어의 문법 구조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롤 쉬프트는 예를 들면, 이승만의 얼굴을 찡그리며 ‘국민 여러분’하고 느리게 말하는 모습, 박정희의 굳은 군인의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 하는 단호한 모습, 아버지의 ‘카!’ 하고 소주를 마시는 모습 등을 한국수화에서는 다양하게 형상화해 표현할 수 있다.

III.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대응식 수화의 문제점 분석

한국수화(자연수화)의 관점에서 본 국어대응식 수화에는 농인들이 즐겨 쓰는 자연수화의 구조적 특성이 무시된, 이른바 한국어의 구조에 따르는 수화 표현의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교육부 지정 교과서인 청각장애학교 중학부 수화의 문장이나 단어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어의 구조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잘못 만들어져 쓰이고 있는 국어대응식 수화 표현의 구체적 실제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형성과정 및 표현상의 비(非)자연성과 비(非)축약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화는 음성언어와는 그 구조나 표현양식이 결코 같을 수가 없고 매우 상징적이고 축약적인 특성을 지닌다. 농인들의 이러한 수화는 농인들이 오랜 세월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자연언어 즉, 자연수화인 것이다. 또한 수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음성언어를 손동작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하는 상징성과 긴 말을 짧게 줄여서 표현하는 축약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자연수화의 특성에 대비되는 국어대응식 수화에서 이러한 표현상의 실제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작년 3월 어느 날(교육부 중3 수화 쪽수 97, 1995)에서 ‘3월’의 국어대응식 수화 기호로는 ‘삼’+‘달’의 순으로 되어 있다.

② 수재민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교육부 중1수화 쪽수 10, 1993)에서 ‘수재민’의 수화 기호로는 ‘물’+‘비’+‘빨강다’+‘손해’+‘사람’의 기호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상 두 가지 사례에서 <3월>의 수사 관련 수화 표현은 자연수화에서의 수사 결합을 이용해서 축약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를테면 <2일 전>, <2학년>, <2호실>, <2분>, <2시>, <2주간>, <두 개월> 등의 수화 기호는 수사 결합을 이용해서 축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국어대응식 수화 기호로는 한결같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수재민>의 국어대응식 수화 기호는 5가지 기호의 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기호 수가 너무나 많고 인지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자연수화로는 ‘벼락 맞다’+‘사람’의 기호 순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상징적이면서도 축약적인 표현이다.

2. 수화표현상의 문제점

1) 공간 활용상의 반(反)복합성 및 폐쇄성

국어대응식 수화의 공간적 위치는 협소하고 반(反)복합적이다. 한국수화의 최대 무기는 공간차원에서 무한정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데 비해 국어대응식 수화의 공간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예를 들어 <아주 멀다, 조금 멀다, 약간 멀다 또는 매우 무겁다, 조금 무겁다, 약간 무겁다>의 표현은 한국수화(자연수화)에서는 공간차원에서 다양한 선 모양으로 거리상의 길이, 무게상의 경중 등을 얼마든지 부사적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는 국어대응식 수화 표현에서는 복합적이지 못한 즉, 따로

따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국어대응식 수화의 어순배열은 하나하나 짜여진 어순배열에 충실히 따른다. 예를 들면 <영수야, 나하고 같이 동대문에 가자>의 국어대응식 수화에서는 <영수+야(지문자)+나+하고(지문자)+같다(같다+지문자)+동대문+에(지문자)+가다+~부탁하다>의 순으로 표현하는데, 그 기호 수가 매우 많으며, 읽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 이에 비해 한국수화는 <영수+동대문+나하고 같이 가자>의 순으로 표현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의 수화표현이 <같다>의 기호만으로 가슴 앞에서 세웠다가 어깨너머로 천천히 넘어가는 동작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어순 배열이 공간상에서 동사일치에 의해 얼마든지 조직화될 수 있다. 즉, 수화의 신호는 동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공간적 차원으로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두로 말하는 국어대응식 수화를 정확히 번역하려면 한국어나 한국수화(자연수화)보다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므로 실제로 완전하게 번역되지 않으며 단어에 상당하는 몇 개의 수화 기호가 불완전한 한국어의 어순에 사용되는 혼종어(hybrid)와 같은 형으로 더러 나타난다. 말하자면 불어의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을 독일어의 어순에 따라 벌여놓고 메시지를 구성하는 격이 된다. 따라서 산출된 것은 불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다. 불어의 화자에게 독일어의 구문을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편이한 방법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어대응식 수화는 ① 어떠한 농아인 집단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② 농아인들 속에서 세대를 이어 전승되지 않으며, ③ 농아인의 문화적 사회를 반영하지 않으며, ④ 혼종어로서 음성언어의 구조와 수화언어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지니는데, 그렇다고 그 어느 쪽 부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

2) 공간 표현 기능상의 제한성 · 경직성

국어대응식 수화는 실감나는 표현성이 없다. 즉, 손의 다양한 변화가 제한되어 있고 감정 표현이 경직되어 있다. 한국수화의 표현기능 중 하나의 자질은 손의 다양한 변화와 비수지적인 표현양식에 크게 의존하는데 비해, 국어대응식 수화는 손의 다양한 표현이 제한되고 인간감정을 중요시하는 의사소통 양식에 맞지 않는다. 이를테면, <빠르게 걷다>의 국어대응식 수화 표현은 <빠르다+ ㄱ+ ㄱ(지문자)>의 순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수화의 부사적 기능을 죽이는 표현이나 다름없다. 이를테면, 한국수화(자연수화)에서는 ㉠ 빠르게 걷다 ㉡ 힘없이 비틀거리다 ㉢ 천천히 걷다 ㉣ 빠르게 걷다 ㉤ 술 먹고 잔뜩 취해 걷다 ㉥ 오만무도하게 걷다 ㉦ 살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걷다 ㉧ 급하게 또는 부리나케 걷다 등과 같은 수화 표현은 반복의 횟수에 의한 그 의미의 강약 표현, 강약의 정도에 따른 부사적 기능 성립, 발화의 시간 길이(장단:長短)에 따라 통사적 구문 성립, 비수지적 기호로서의 부사적 기능 표현 등을 이용해서 운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의미상의 공존관계로서 문맥적 상황에 맞는 여러 관계성을 나타내는 부사적 기능

을 얼마든지 운율적으로 연출해 낼 수 있다. 수화의 운율적 표현이란, 시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는 손짓의 움직임에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미세한 것도 있고, 강렬한 것도 있는데다가, 짧고 긴 여운을 주는 움직임도 있다. 소리에 있어서 그 파장과 진동이 있듯이, 수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수화의 운율적 표현 양상은 수화 대화 현상에서 강조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강조란 주(主)가 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단조로움을 벗어나 변화와 통일을 갖게 전달내용의 주체와 핵심을 확인하고 유도하여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려 함에 있다. 수화가 지니는 대화현상에서 상대방에게 시지각적 자극을 주려는 문맥적 강약 표현, 이러한 손동작의 강약이 미치는 문장구조가 결정된다는 점, 수화의 발화문 길이에 따른 문장 구조가 결정된 점, 한 손이나 두 손에 따라 단수형이나 복수형 문장이 결정된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과 율동인데, 리듬은 공간적 요소에 넓게 전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러나 국어대응식 수화로는 이러한 표현이 제한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다.

3. 의미 표현상의 반(反)시각성과 부적절성

1) 언어기능 표현상의 비(非)문법성

국어대응식 수화는 문법적이라기보다는 비문법적이다. 한국수화는 화용론적인 문맥 상황에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생산적인 표현이지만, 국어대응식 수화는 문맥 상황에 따르지 않고 하나의 기호를 완전 그대로 따르는 비문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보내다>의 수화기호는 문맥적 상황(편지를 보내다, 사람을 보내다, 물건을 보내다, 돈을 보내다)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국어대응식 수화는 하나의 단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문맥 의미상 맞지 않는다. 자연수화(한국수화)에서의 <보내다>의 기호는 6가지 기호로 되어 있는데, 국어대응식 수화기호는 자연수화인 <보내다>의 수화기호 중 하나만을 골라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2) 언어기능 표현상의 반(反)시각성

국어대응식 수화에서 자연수화의 통사구조상에 맞지 않는 수화표현은 다음과 같다. <누가 말했나?(주어 + 서술어)>의 수화표현으로는 국어대응식 수화(누가+말하다+끝+묻다)와 한국수화(말+누가)의 서로 대비되는 표현양상을 지니고 있다. 수화의 구성성분도 국어의 어법에 맞춘 수화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위의 한국어대응식 수화 표현은 농인의 시각적 질서에서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낀다. <누가 말했나?>의 수화표현에서 자연수화의 어순으로는 ‘말’ + ‘누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의 수화기호를 마지막

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말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수신자가 상대방의 강한 의도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문사가 질문의 중심이기 때문에 정보의 초점을 받는다. 수화의 대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주어가 목적어 앞의 문두 보다 뒤의 문미로 많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가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히 알기 위해 뒤의 문미에 돌려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통사적 견지에서 위치상의 관계로 따져 볼 때는 결코 틀린 문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어는 생략되어도 공간적으로 그 의미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적 이해가 가능하다. 수화표현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이다. 강조란 주가 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단조로움을 벗어나 변화와 통일을 갖게 전달 내용의 주체와 핵심을 확인하고 유도하여 개성과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수화가 지니는 시각적인 질서라 할 수 있다.

3) 의미 표현상의 부적절성

국어대응식 수화는 의미 표현이 시각적이지 못하는데다가 해학적이지 못하고, 무뚝뚝한 언어이다. 한국수화는 수많은 비유가 들어 있어 대화상의 풍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데 비해, 국어대응식 수화는 의미상의 비유가 들어있지 않아 즐거운 대화가 지속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국수화에서는 <밥이 상해서 못 먹겠다>의 수화표현은 상하다 + 밥 + 목자르다(오른손을 펴 5지 끝을 목덜미에 대어 아래로 스쳐 내린다.) '목자르다'의 기호는 얼굴을 들 자신이 없는 데서 유래한 수화기호이다. 이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를 딛고 일어서 능히 감당할 자신(자격)이 없는 경우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판단하여 인정하고 포기해야 할 때 이 기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국어대응식 수화로는 이러한 표현이 불가능하다.

4. 유사 표현의 제한성

1) 유사 표현의 제한성

수화에는 시각적인 자극을 받은 즉, 살아 움직이는 손동작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유사(classifier)라는 독특한 표현법이 있다. 이러한 유사 표현을 통해 지속적인 흥미진진한 대화가 가능하다. 이와는 반대로 국어대응식 수화에는 유사표현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수화에서는 <아기가 울다(아기+울다(양손 1·2지를 붙여 양 눈가에 대었다가 위로 떼서 살짝 올리며 떼는 동작을 수차 한다), <어머니가 울다(오른손 1·2지를 붙여 오른 눈 밑에 대었다가 아래로 천천히 턱밑 까지 내린다), <할머니가 울다(오른손 1·2지를 붙여 오른 눈가에 대었다가 짧게 내린다)> 등으로 표현한다. 위에서 보았

듯이, 아기, 어머니, 할머니의 우는 모습은 사뭇 다르다.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는 반면, 할머니는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러 눈물의 샘이 말라 힘없는 존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울다’의 수화기호가 상황에 맞게 표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어대응식 수화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불가능하다.

국어대응식 수화는 농인의 시각적 즐거움을 완전히 차단시킨다. 국어대응식 수화는 시각적으로 처리하기가 불편해서 라기 보다는 뇌 속으로 저장, 처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Slobin은 화자와 청자의 필요와 강제들이 언어의 구조를 결정한다고 지적하였다(안성우, 1997에서 재인용). 그는 의사소통 시스템이 인간의 언어로서 완전하게 기능을 하려면 투명성, 처리가능성, 신속성과 수월성, 표현성의 네 가지 규칙에 맞아야 하는데, 음성 언어(국어)체계에 따른 수화는 이 네 가지 규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고안된 문법 수화는 Slobin의 언어학습 가능성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국어대응식 수화를 수십 년 이상의 가르치고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의 효과 즉, 실용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2) 오노마트페에서의 비운율성

<오노마트페>의 유사 표현에서는 보편적으로 손의 다양한 변화와 비수지 동작에 의해 수화가 산출된다는 점이다. Liddell(1980)의 ① 추상적 문법표지 ② 부사 ③ 어휘의 일부 ④ 판토타임의 일부 ⑤ 감정적 주관적 표현 등을 바탕으로 <오노마트페>의 유사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한다면, <한 남자가 회오리바람 앞에서 꿈쩍 못하고 두려워하며 서 있는 모습>의 수화 표현에서 <양손>을 쥐어잡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하고 <바람>이라는 기호가 손가락을 번갈아가면서 회오리바람이 부는 모습을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여기서 ‘화제화(話題化)’에서는 머리를 조금 뒤로 제치고, 눈썹을 올리지 못하는 동작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어대응식 수화는 자세가 꼳꼳이 서 있으면서 연출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어 자연수화와 같은 운율적 감각을 느낄 수 없다.

3) 수화 리듬상의 경직성

수화의 리듬 표현은 앞서 기술한 벨리(C. Valli, 1996)의 수형리듬, 동작계적리듬, NMS리듬, 행단락리듬의 4개의 리듬을 바탕으로 해서 아름다운 수화 리듬을 바탕으로 표현한다면, ① 수형리듬은 예를 들면 ‘꽃이 피어나는 모습’은 시간의 흐름에 양손을 합쳤다가 꽃이 피어나는 모양으로 조금씩 벌려나가는 표현이다. ② 동작계적리듬은 예를 들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빠르게 움직인 다음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을 손으로 그려 표현할 수 있다. ③ NMS리듬은 예를 들면 이른바 비수지기호

로서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과 아이가 우는 모습을 얼굴 표정으로 그려 표현할 수 있다.

④ 행단락리듬은 예를 들면 자동차가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하는 모습을 손으로 형상화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대응식 수화에는 이상과 같은 4개의 리듬 표현이 경직되어 있다.

4) 롤 쉬프트에서의 부적절한 역할 표현

롤 쉬프트에서의 역할에 따른 사람의 비수지 동작, 즉, 표정, 시선, 상체(上體)의 움직임은, 각각 다른 사람의 표정, 시선, 신체 동작의 다양한 운율적 표현이 필수적인데, 국어대응식 수화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마치 로봇형태로 무미건조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롤 쉬프트는 예를 들면, 이승만의 얼굴을 찡그리며 ‘국민 여러분’하고 느리게 말하는 모습, 박정희의 굳은 군인의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 하는 단호한 모습, 아버지의 ‘카!’ 하고 소주를 마시는 모습 등의 인물 특성상 배역을 충실히 연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대응식 수화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수화는 1) 농인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자연성, 표현상의 상징성, 축약성 2) 수화의 표현 동작이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성, 3) 농인들의 청각이 아닌 시각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는 시각성, 간접성 4) 살아 움직이는 손동작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유사(classifier) 표현, 5) 사물의 움직임이나 위치, 형태나 크기 등을 손의 움직임이나 위치, 형태나 크기에 옮겨 놓는 오노마트페(onomatopoeia) 6) 음성언어에서와 같은 리듬, 7) 수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는 롤 쉬프트(role shift)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수화(자연수화)는 농인들이 그들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그들은 한국(자연)수화를 그들의 모국어로 생각하며 이의 활용을 즐겨하고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둘째, 국어대응식 수화는 1) 형성과정 및 표현상의 비(非)자연성과 비(非)축약성, 2) 수화표현상의 문제점에서의 ① 공간 활용상의 반(反)복합성 및 폐쇄성 ② 공간 표현 기능상의 제한성·경직성, 3) 의미 표현상의 반(反)시각성과 부적절성에서의 ① 언어기능 표현상의 비(非)문법성 ② 언어기능 표현상의 반(反)시각성 ③ 의미 표현상의 부적절성, 4) 유사 표현의 제한성에서의 ① 유사 표현의 제한성 ② 오노마트페면에서의 비운율성

③ 수화 리듬상의 경직성 ④ 롤 슈프트면에서의 부적절한 역할 표현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분석, 구명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국어대응식 수화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대로 계속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와 농교육계의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수화(자연수화)와 고안된 국어대응식 수화에 대한 검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는 종합적 연구를 제안한다.

농인이 쓰는 수화의 전체적인 표현 양상들을 조사하여 그 체계를 파악하고 기술하는 언어학적 연구는 물론, 신경생리학적 관점 및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수화교육은 궁극적으로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적 기저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화교육에서 대상으로 삼는 언어는 국어 중심의 문장 층위가 아닌 농인의 담화·텍스트 층위이어야 한다. 실제 의사소통의 단위가 문장이 아닌 담화·텍스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탈맥락적인 문법성과 적격성에 의존해 오던 문장 층위의 언어교육을 지양하고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 의사소통 맥락과 상황 요인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담화·텍스트 차원에서의 언어 교육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바람직한 수화교육은 농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철학적 기저에서의 연구가 요망된다. 제이콥스(Jacobs.R.,1997)는 보통 영어 원어민이 미국수화 2단계의 수준까지 그 실력을 끌어올리려면 1,320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하였다. 수화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는 수화의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을 감안하여 많은 문제점이 밝혀진 국어대응식 수화 교육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1993), 특수학교(청각장애)중학부 수화1, 충남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4), 특수학교(청각장애)중학부 수화2, 충남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5), 특수학교(청각장애)중학부 수화3, 충남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김철관(1999) 수화지도의 이론과 실제, 인천성동학교.

- 안성우(1997), 문법수화가 언어인가, **난청과 언어장애연구**, 20(2), 51-67.
- 윤병천(1996), 한국 청각장애자의 사용 수화어휘빈도조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진권(2004), **재미있는 한국수화여행**, 서울 : 한국농아인협회.
- 정은(2002), 수화의 사회적 인정, 그 당위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사소통권과 사회 통합의 연관적 의미 고찰,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002. 9. 제3권 3호.
- 한국농아인협회(1998), **한국수화**, 서울 : 한국농아인협회.
- Bellugi, U., and Klima, E.S.(1980), Morphological processes in a language in a different mode. In: The elements: Linguistic Units and level. Hands, W. F., Hofbauer, c., and Clyne, P.R., eds.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Clayton Valli(1996), ASL Poetry Selected Works of Clayton Valli, DawnSign Press.
- Eriksen., C. W., & St. James., J. D.(1986). Visual attention within and around the field of focal attention; A zoom lens model. *Perception & Psycho- physics*, 40,
- Jacobs, R. (1997). Deaf-Blind Interpreting 101. *Views*, 14 (11), 8-9.
- Liddell, S.(1997), Numeral incorporating roots and non-incorporating prefixes in ASL. *Sign Language Studies* 92.
- Posner, M. I., & Cohen, Y. (1984). Components of visual orienting. In H. Bouma & D. Bouwhuis (Eds.), *Attention and Performance X* (pp. 55-56), Hillsdale, NJ: Erlbaum.
- Posner, M. I., Snyder, C. R., & Davidson, B. J.(1980). Attention and detection of signa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9, 160-174.
- Stokoe, W.(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Linstok Press.
- Supalla, S.J.(1990). Serial verbs of motion in ASL. In S.D. Fisher & P. Siple(Eds), *Theoretical in sign language research: Volume 1: Linguistics*. Chicago, IL: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alyzing the Problems of Sign Language Following Korean Language System According to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ign Language

Chang, Jinseok

Nazared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Sign Language following Korean Language System according to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ign Language.

The result of analyzation is found as followings;

First, Korean Sign Language has the characteristics of ① naturalization in being formed and being used in deafs' lives, ② expressions by briefed signs in the space instead of sound language, ③ understanding its meanings by seeing, ④ classifiers, ⑤ onomatopoeia, ⑥ rhythm as like in sound language, ⑦ other's role shift, and ⑧ that deafs especially like to use it and it is proper to deaf's communication tool.

Second, the designed Sign Language following Korean language system ① is not natural and briefing in being formed and expressions, ② doesn't have compound linguistic factors, ③ limitation, stiff and proper in expressions in space, Classifiers, onomatopoeia, rhythm and role shift, ④ the deafs especially dislike to use it, ⑤ that they respect the natural sign language more than the designed sign language in other country such as USA.

In conclusion, as Sign Language following Korean Language System has many problems, it is expectable that the educational system of sign language must be studied in whole sides of it.

Key words: Natural Sign Language, Designed Korean Sign Language, Classifier, onomatopoeia.

논문 접수: 2005. 10. 20 심사 시작: 2005. 10. 25 게재 확정: 2006. 6. 25